

## 대북사업 관련 현안 논의 치협,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간담회

치협은 5월 11일 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북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에서 김동기 부회장, 조영식 기획이사, 홍순구 실장이 참석했으며, 재단 측에서는 노광을 사무총장, 이강희 실장, 최현주 팀장이 참석했다.

조영식 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2000년 경부터 북한을 지원해 왔다”며 “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해오다 2006년 치협과 건치, 치기협, 치위협, 치재협 등을 중심으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해 직접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 사업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기 부회장은 “남한 치과계에서 북한에 유니트체어를 100대 이상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가 되고 유지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북사업이 기록으로 남고

좀 더 계획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개성 내에 북측 근로자들의 구강진료를 위한 ‘협력 구강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동 구강병원’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광을 사무총장은 “재단에는 여러 의료 단체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며 “치협도 함께 공조해 대북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단체 간의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한 현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험해온 북한과의 예민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재단은 2006년 8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해산되면서 이를 승계해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개발도상국과 북한의 보건 의료 개선 및 응급의료구호를 위해 활동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다.

## “경영환경 개선 닷 올렸다” 치협 경영정책위 첫 회의…위원 위촉장 전달

치과 개원의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치협의 새로운 시도가 첫 선을 보였다. 치협의 신설위원회인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심현구·이하 위원회)는 5월 30일 서울 서초 대원에서 뜻 깊은 초도 회의를 개최했다. 상건례를 겸한 이날 위원회에는 김재영 치협 부회장, 심현구 경영정책이사과 9명의 위원들이 참석,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심현구 경영정책이사를 위원장으로 홍순호 원장,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한성희 경기지부 부회장, 조성욱 서울지부 법제이사, 정환영·서민정·홍미희·신순희·김진환·정기춘 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운영 및 향후 목표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한편 활동에 따른 업무 분장 등 주요 로드맵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연구키로 하고 개원의 요구사항 및 수요조사를 위해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참석자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또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 치의신보 내에 경영정책과 관

련된 코너 게재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치협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송수신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개원의 경영정책 및 지원에 대한 연구 ▲개원의 경영 환경 개선 연구 ▲감염관리에 관한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발간, 회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경영환경 지원 모델을 분석하고 인적자원 관리, 재무 및 마케팅이론에 관한 이론과 각종 서식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김재영 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위원들이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근 경영이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 만큼 개원의들의 개원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경영정책위원회가 회원들이 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이 활약, 치협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 '범국민 청원운동' 돌입 치협 등 범치과계 참여 추진위 발족 / 위원장에 김진범 교수

치협, 치위협, 치기협, 구강보건 협회 및 학회, 건치 등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위한 범치과계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공식 발족된 가운데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청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협, 치위협, 치기협, 치기협,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건치 등 범치과계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5월 2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설치를 위한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5월 17일 구강보건팀이 공식 폐지된 이후 범치과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였다.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모임을 상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함으로써 구강보건학회 회장인 김진범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향후 추진위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또 1차 사업으로 오는 구강보건의 날을 위시해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각 지부별로 관련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5월 15일 복지부 구강보건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 총사퇴 한 것과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치협

을 비롯한 치위협 등 범치과계 단체들도 저소득 노인의치사업 등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해 온 민간협력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 차원의 모든 수상도 거부키로 했다.

단, 추진위는 범치과계가 복지부 민간협력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복지부를 배제한 범치과계 차원의 독자적인 구강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치과계가 복지부 사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복지부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치과계는 앞으로 독자적인 구강보건사업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현재 치협 산하 각 지부차원서 오는 6월 구강보건주간을 위시해 각 지역신문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해체에 대한 항의성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 각 단체 산하 지부들의 동참을 결의했다.

이에 추진위는 빠른 시일내 각 단체별로 전문가 1인씩을 포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 전문의 2차 시험 문제은행 방식 취한다 수련고시위 결정

치과의사전문의 2차 시험은 최소 3배수 문항을 기반으로 문제은행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문항 보관은 협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안창영)는 지난 16일 홀리데이인 성북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의 시험 2차 시험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같이 결정하고 2차 시험 장소를 경일중학교로 최종 확정했다.

2008년 1월 24일 시행되는 2차 시험의 결과 발표는 2월 1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제위원 수와 관련 보철과는 4명으로 하고 그 외 과는 3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점위원 수는 2명으로 정했다.

안창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역사적인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위원들이 열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출제장으로 결정된 홀리데이인 성북호텔의 출제 장소 및 숙박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